

#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1)

##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10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6개 회원국 중 중국, 파키스탄, 몽고가 불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이 옵저버로 참가하여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며,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을 2003년 1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활발한 논의와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편집자주)

### Fellowship Meeting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함.

오랜 동안 홍콩의 Ronald Poon이 Fellowship Meeting 회장 일을 보아왔는데 이번부터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미 림이 참석하지 못하여 2003년부터 아카시아 회장을 맡게 되어있는 홍콩의 Barry Will이 주관하여 진행함. 개회시 참석자는 15명 정도였고 후에 서너명 정도 추가됨.

- 전번 회의록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각자의 관심사를 피력하는 것으로 시작됨.

- 이전에는 가입비와 회비를 징수하였는데 현재 유보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징수를 유보하기로 함.

- 아카시아와 직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각자 제안하고 논의하여 주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R. Poon> Fellowship Meeting은 아카시아 회장의 Think Tank 역할을 해야 하며 UIA관계 일들은 아카시아 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젊은 세대와 어린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 협회는 노력해야 하며 건축사의 보존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 APEC회의는 주로 엔지니어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출입국 관리소 등)의 해석에 따라 APEC 결정사항 등의 실사가 제지 받곤 한다.

- 아카시아 회원국간에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및 용역시장의 개방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권고.

- 해외에서 자리잡은 본국의 건축사가 본국에서 건축 일을 수입하여 지역 건축사와 협동할 때 지역 건축사들은 종속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기구가 지역 건축사의 역할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건축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 건축사들은 각종 복제권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령 지도등의 사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논의된다. 건축사들은 자신의 설계 건물이 영화, 비디오 등의 배경으로 쓰일 때 복제권을 행사하여 그 수익금으로 생활공동체 형성과 생태적인 개선 등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카시아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 아카시아 관련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인사들 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연결 매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생태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열의가 자칫 서구의 모델에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무모한 모방에 대한 경고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의 Team Zoo 등에 의한 최소 산출 과정 등 고유 모델의 설정 등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20여 년간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건축관계 법을 고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중국의 장지난씨는 자신이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공학성향을 제거하고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 학교 교육과 실무분야의 괴리가 건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Teaching Hospital System이 주목할 만 하며 중국에서도 그 실제 시행 실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건축교육 제도에 도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태국에서는 풍수사(Feng Sui doctor)의 위세가 건축사들의 결정을 임의로 반복하는 빌미가 되어 전문직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고래로 Vastu(dwelling) Shastra(science)가 정립되어 왔는데 건축계에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정규교과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이번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대회에 여러 변칙 요소들이 작용하여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사 조직의 책임을 부여받은 협회가 일정 시간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 아카시아 의장 직권으로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제 23회 이사회 (12월 3, 4일)

### 회기 1 개막식

-10시에 회의 시작. 현 회장 Zaigham Jaffery가 비자 문제로 불참하게되어 B지역 부회장이며 전 필리핀 협회 회장이었던 루이스 여사가 임시 회의 의장을 맡아보게 되었고 전 교육위원장이었던 스리랑카의 Alwis가 임시 서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전 아카시아 고문 로날드 푼 이 현 회장 제프리의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본의 아니게 불참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아카시아는 단결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불상사에 너무 개념치 말고 확목으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 중국과 파키스탄, 몽고 등이 불참하였고 네팔에서는 올해 아카시아 가입을 목표로 오브저버로 참석하였다.

- 개최국 인도 협회장 Valvir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UIA 제 4지역담당 부회장인 호주의 Louis Cox가 축사를 하였다. 그녀는 UIA에서 아카시아의 의견이 점점 더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4지역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웹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것 그리고 UIA 2지역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카시아에 참여하고 싶다는 전갈을 전했다.

- 아카시아 창설에 공헌했다고 하는 인도의 원로 건축사 Jai Rattan Bhatta는 1967년 아카시아 태동당시를 회고하며 현재 세계 건축계가 당면한 문제로서 건축사의 역할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거센 세계화의 물결속에서도 건축의 지역적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건축교육 역시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회기 2 본 회의

- 차기회장 내정자인 홍콩의 Barry Will이 적어도 전 이사회이력과 회의순서가 두 달 전에 각 회원국에 배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이번 개최국의 준비 부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 (3.0. 22차 이사회이력 점검) 작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22차 이사회이력의 확인 과정을 거쳐 5페이지까지는 이사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는 자료가 보완되는대로 진행하여 일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말레시아의 Esa Mohamed가 담당하기로 한 UIA Accord 위원회에 대한 안건은 Esa의 불참으로 인해 Will이 연락하여 처리하기로 함.

- (4.0. 재무보고) 재무보고가 있었고 현재 \$19,057 불의 유보액이 남아있다. 아카시아 회원국의 회비 수입은 현재 년 \$16,500 불이며 Barry Will은 회장국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구좌은행 이전시의 비용은 아카시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싱가포르 협회에서 담당하는 아카시아 건축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4.6. ARCASIA Website) 싱가포르의 Rita Soh가 www.ARCASIA.com에 대한 진행보고가 있었다. 각 회원국의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도록 요청.

- (4.7. Architecture Asia) 말레시아 담당자로부터 아카시아 건축잡지 발행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각 호당 \$1,000불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일부 회원국 말고는 잡지의 내용을 이루는 작품이나 기타 원고를 보내오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 (5.0. ARCASIA A, B, C 지역의 활동) 필리핀의 Yolanda가 대부분의 B, C지역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APEC회의 활동에 대해 언급. 다음 회의는 12월 12-14에 Kuala Lumpur에서 열린다 함. 싱가포르 측에서는 왜 기능들이 비슷한 회의 조직을 중복해서 구성해야 하는가 하고 부정적인 견해 보임.

### 회기 3 아카시아 일들의 점검.

- (6.0. Report on ACAE) 교육위원장 필리핀의 올란다가 교육위원회 진행 사항을 발표함. 새 교육위원장에 일본의 George Kunihira가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 (7.0. Country Report) 각국이 돌아가며 지난 일년간 있었던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알렸다. 우리측에서는 주로 동북아 건축사 연합회, 일본 협회와의 교류, FICA 등 국제관계의 진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 (8.0. Report from ARCASIA Committee on Practice) SIA가 주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각 회원국으로부터 한 달의 기간동안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보완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시 채택하기로 함.

- (9.0. ARCASIA Information Dissemination: 9.2. Architecture Asia) 아카시아 건축잡지의 창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P. Kasi가 상황을 요약함.

\* 각 회원국에 100권을 무료로 배분하는 것은 계속한다.

\* 실제로 책의 발간을 대행하고 있는 BC사와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간에 5내지 10년간의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다.

\* 각 회원국과 잡지관계 일을 연락 협의 할 책임자를 회원국마다 선정해 줄 것을 당부.

\* 회원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잡지 편집진으로 접수되는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와 같이 회원국들이 수동적으로 임하여 좋은 작품의 게재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잡지의 생존을 위하여 협회를 통하지 않은 작품접수도 불가피할 수 있다. 회원국으로부터의 접수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충분한 작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Report on Student Awards from JIA) 학생 건축상의 운영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행사를 집행하는 당사국은 집행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금번 인도에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에 알려지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14.1. Report from SIA on FORUM 11) 싱가포르 협회가 작년에 그들이 개최하였던 아카시아 포럼 집행 상황에 대해 결과보고 함. 이사회는 싱가포르 협회에 감사의 표시를 함.

- (14.2. Forum 12 Bangladesh) 필리핀 등 이슬람 국가의 행사일정 관계로 포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003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결정. 날씨관계로 12월이 가장 적당하다 하며 방글라데시를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 (15.1. HKIA-SIA-UIA-ARCASIA Seminar on Architecture for the Handicapped) 홍콩이 주관했던 장애자를 위한 건축에 대한 국제 세미나의 책자가 배부되고 이 행사를 조직하는데 애쓴 Joseph Kwan에 대한 치사가 있었다.

- (17.0 Jury for ARCASIA Awards)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진행을 위한 심사원 구성의 당연직과 선출직의 발표가 다음 해 집행국인 방글라데시 협회로부터 있었다.

Convenor : Sharmware

Advisor : Fung John Chye (Alternate : Zaigham Jaffery)

Jury : Barry Will(Chairman Arcasia), Sharmware(Convenor), Justice Habibur Rahman (Bangladesh),

B.V. Doshi(IAA), Ken Yeang(PAM), Rasem Batram(Jordan)

- (MACAU's presentation) 마카오 협회 측이 2004년에 개최할 아카시아 이벤트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국에는 건축학교가 없으므로 학생 잠보리는 홍콩협회의 협력으로 진행하기로 함.

- 네팔에 대한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네팔은 250명 정도의 건축사가 있으며 문화적으로 인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루이스의 성공적인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었고 주최국에 대한 노고도 치하였다.

현 회장 Zaigham Jaffery가 본의 아니게 참석 못하게 되어 필리핀의 루이스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협조로 무난히 끝났다. 그러나 인도측에서 서류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의 진행 순서도 변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 뿐 아니라 학술회의와 학생 잠보리, 건축상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카시아 탄생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폴이나 태국 등의 국제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자원과 독려를 통해서 국제활동에 자원과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많은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일본의 국제관계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은 전에 없던 강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국제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국제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을 필두로 국제적인 학술세미나와 교육세미나를 초치하여 개최하는가 하면 국외의 학술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발표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관계 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며 행사참석에 그치지 말고 work program 등을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조직하고 이벤트를 초치하며 그 결과물을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이정근/본협회 국제위원)

## ARCASIA 교육위원회(ACAE)

제10차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가 2002년 12월 5~7일 사이에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본협회 국제위원으로 금번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월1일 저녁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도 델리로 갔다. 약 10시간의 비행 여정 후 현지에 도착하니 시계가 새벽 2시 (한국시간 5:30분)를 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문앞에 대회일정에 관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첫날은 Fellowship Meeting, 둘째 및 셋째 날은 아카시아 이사회가 있으며 셋째 넷째 그리고 5일째는 아시아 건축사 대회 및 학생 챔버리가 열리는 일정이었다.

## 12월 2일

오늘은 Fellowship Meeting이 있는 날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나라 대표단이 도착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일년만에 조우하였다. 첫날은 Fellowship Meeting인지라 아직 몇몇 나라는 도착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 등 몇 나라에서는 인도 건축사회에서 초청장 발송이 늦은 관계로 인도 비자를 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현 아카시아 회장인 파키스탄의 Ziagram Juiffery氏도 비자 문제에 참석치 못하였고 그 대신하여 아카시아 차기 회장인 홍콩 건축사 대표인 Mr. Barry Will씨가 Fellowship Meeting의 사회를 보았다. Fellowship Meeting의 내용들은 주로 금번 이사회 회의의 Agenda를 제시하고 교육 위원회의 Agenda를 정하였으며 이번 아카시아 대회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건축대학 학생들이 참석하는 Student Jamboree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Coffee Break 후에는 각국에서 송금하는 연회비에 대한 입금확인 및 운영상황 설명도 곁들여졌다.

첫날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각국의 Fellowship Member들이 금번 대회에 대한 진행 사항을 꼼꼼히 check한 다음, 저녁 늦게 Fellowship Member를 위한 Dinner Party가 현 숙소인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버스로 약 1시간 떨어진 조용한 Resort Hotel에서 있었다. 델리의 12월 밤 기온은 냉랭하였으며(약 4~5℃) 다소 추위를 느끼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 12월 3일

오늘부터는 아카시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우선 14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임사회장단이 좌장을 한 다음에 간단한 Comment와 금번 참석치 못한 현 아카시아 회장인 Ziagram Jaffery씨의 인사말을 Arch. Poon씨가 대독하여 잠시 회의장이 숙연해졌다. 인도건축사회의 초청장 발송 문제로 파키스탄 대표, 중국 대표가 참석치 못하였으며 몽골 대표단도 보이지 않았다. 아카시아 회장이 공식 중인지라 Adviser Arch. Poon씨의 추천으로 Zone "B"의 Deputy Chairman인 필리핀 대표인 Arch. Luis씨가 임사회장을 맡아서 회의 진행을 하였다. 우선 회장 인사말과 개최국 Convenor의 인사말이 있었고 각국 대표들의 자기소개를 일일이 하였다. 금번에는 네팔건축사회가 우선 Observer로 참석하고 있었다. 개최국에서는 지난번 대회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File을 각국 별로 나누어주면서 지난번 싱가포르 대회서 의제로 채택된 Object들을 수정 내지 보완하여 이사회의 의결 통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원래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할양 Country Report도 준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던 동국대학교 김홍일교수가 항공기 연결이 원만치 못하여 회의 장소에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득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Data를 들고 바로 옆 회의실로 옮겨와 교육위원회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금번이 처음 참석인지라 난감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본 대표인 Arch. Gorge Kunihiro씨는 생소한 나를 보면서 Pinch Hitter라 불러 빙그레 웃고 말았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는 필리핀 건축사 대표인 Arch. Yolanda씨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일본 대표인 Arch. Kunihiro씨가 그리고 총무에는 인도 대표인 Mr. Singh 교수가 맡아 회의를 주관하였다. 현재 교육위원회 회장인 Arch. Yolanda씨의 인사말과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으며 특히 UIA의 Region IV의 대표인 호주 건축사 Mrs. Cox씨가 참석하였으며 곧 이어서 지난번 싱가포르 건축사대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던 Agenda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승인하였다. 각국 대표들에게는 회의자료 Report들을 나누어주었으며 지난번 회의에서 건축교육을 위한 Guide Book 편찬을 하기 위하여 그 내용 중 일부인 Time Line Chart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ime Line Chart란 각 국가별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건축물을 그 사진과 함께 연대, 건축가 이름, 건물명 등을 기입하여 시기별로 정리하는 page로써 차후 건축 및 건축학생들에게는 좋은 건축물 종합 목록지가 될 것이라 보았다. Time Line chart의 각 page에는 반드시 하단에 건축물을 선정한 단체(각국 건축사협회)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까지 기입토록 하였다. 교육위원회 당일에는 대략 5개국에서 기 준비하여 제출되었으며 모든 국가에서는 Standard Format에 맞추어 Time Line chart를 정리하여 2003년 1월 말까지 CD 및 Hard Copy로 제출토록 하였다.

다음은 아카시아 회원국의 건축교육(APAE)에 대한 Program 준비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으로 태국 건축사 국제 부위원장인 Arch. Milton Tan씨에게 위임하였다. 이어 ACAE 회의에 따른 협의내용은 매년 ACAE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고 회의 장소는 ACA나 FORUM 회의 때 Host Country에서 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타 자발적 지원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UIA, UNESCO에서 건축교육 인증문제는 아카시아 교육인증위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인증을 원하는 협회 및 단체가 신청하여 인증 받는 문제를 Program화 한 것이라며 UIA 제4지역 대표인 Arch. Cox 씨가 정리 답변하였다. 학점 인증문제 및 비용부담 인원수 조정 등은 계속 협의기로 하였다. 회의 끝 무렵에 ACAE 차기 회장 선거가 있었으며 현 회장인 Arch. Yolanda 씨 후임에 일본 대표인 Arch. Gorge Kunihiro 씨가 당선되었으며 Deputy Chairman에는 인도의 Singh 교수와 스리랑카의 Arch. Kiringoda씨가 선정되었다. 이상으로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모든 Summary는 회장인 Arch. Yolanda 씨가 Council Meeting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금번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서 담당 위원이었던 김홍일 교수가 본진 보다 하루 늦게 출발하고 항공기편 연결이 원활치 못하여 교육위원회에 참석치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협회의 계획성 있는 지원을 당부 드린다.(오근석/본협회 국제위원) ㉞